교육청은 '학폭' 인정했는데 경찰은 '무혐의'

여중생 금품 갈취·폭행·협박 피해 주장에도 불송치 학부모 "경찰에 증거 다 냈는데 형식적 조사만" 반발

은 왜 가해자의 혐의가 없다고 하죠?"

또래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협 견했고, 경찰도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다. 박, 금품 갈취를 당했다는 피해 여중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생을 폭행하며 A씨의 자녀에게 욕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억 퍼붓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학생 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청조차 학교 폭력으로 인정했는데 정작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로부터 "빨리 데리러 와 달라"는 다급한 의 '싸움'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겁 연락에 112 신고 후 남구 진월동의 한 주차 에 질려 있던 A씨 자녀 등은 서로의 뺨을

"누가 봐도 학교 폭력이 분명한데 경찰 장으로 향했다. 도착한 A씨는 수십 명의 또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녀를 발

> 당시 현장에서 가해 학생들은 한 여학 들이 수차례에 걸쳐 A씨의 자녀에게 사 소한 트집을 잡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2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 자녀 또 앞서 A씨의 자녀에게 다른 여학생과

때리는 등 싸움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담은 고소장과 함께 SNS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증거 를 확보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후에도 A씨는 자녀를 향한 괴롭힘 등 2차 가해가 계속되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일 관련 학생 7명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를 열고 "신체·정신·재산상 피 해를 유발한 학교폭력"으로 판단했다.

육을 명령하고, 일부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를 앞둔 폭행에 대 한 사실 외에 금품을 갈취한 사건에 대해 "SNS 대화 내역 확인 불가로 공갈의 수단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의 판단에 A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면 제3자 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목격자라도 조사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제출하라는 증거는 다. 포렌식은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이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 SNS 대화 일부를 근거로 '잘 지내는 것 다"며 "제출한 자료를 다 확인했지만 피 같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단 한 차례 조사만 하고 해명했다. 포렌식도 하지 않았다. 교육청에서도 학 위원회는 이들에게 사회봉사와 특별교 교폭력으로 인정했는데 경찰만 다른 결론 을 냈다"면서 "아이가 학교에 가길 거부 하고 집 밖에 나오길 무서워한다. 상담센 터와 병원 치료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 다"고 꼬집었다.

인 협박 증명이 부족하다"등의 이유로 내가 힘들어야 하냐'는 아이의 말이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은 '수사가 제대

경찰 관계자는 "조시는 충분히 이뤄졌 모두 냈지만 경찰은 아이가 하지도 않은 만 진행하며, 이번 사안은 해당되지 않는 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었다"고

> 이에 A씨 측은 수사 미비와 학생이라 는 취약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아이의 마음이 다치고 가족까지 무 너졌다"며 "진실을 밝혀 정당한 처벌이 이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뭐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용성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	3~15		
	목포		4~14		
	여수		5~15		
N. MINIO	순첩		2~16		
확이하네요!	구례		1~16		
광주	해남		3~15		
•	완도		5~16		
전남	흑산도		9~13		
	고흥		2~17		
	진도		6~14		
목포	밀물 (고)	12:11 /:			
	썰물 (저)	05:20 / 17:43			
		07.40 /40.00			

		_ 0	-	11	
•	진도		6~14		
	목포	밀물 (고)	12:11 /:		
목도	썰물 (저)	05:20 / 17:43			
	04.0	밀물 (고)	07:10 / 19:28		
여수	썰물 (저)	00:55 / 13:08			

'일 그만두고 싶어서…'

✔ 마년 및 ○…전남 신안의 한 양식장 직원이 근로 문제를 이유로 숙소 마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일 신안경찰이 현주건조물방 화 등 혐의로 입건한 50대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27분 신안 군의 한 양식장 숙소 마당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아. 불은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 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고. 하지만 A씨에게 불이 옮겨 붙 으면서 화상을 입게 됐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여기에 태양광 패널 일부가 그

을리면서 재산 피해도 발생.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일이 힘들다'며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 도 불구하고 고용주인 B씨가 이 를 만류하자 불만을 품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병원 치료 중인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

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신안=성명준 기자 tjdaudwns@

북구 지역화폐 '부끄머니' 오늘 첫 발행

자치구 최대 100억 규모 18% 할인…가맹점 1만9000곳

광주 북구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3일부터 발

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광주은행 북구 지역 18개 지점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까 지 구매 가능하다.

있는 18% 할인 혜택이 적용돼, 소비자는 황은 북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실질적인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소상공 인과 주민을 돕기 위한 북구의 핵심 민생 정책으로 추진됐다. 관련 조례 제정과 시 "18%라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만큼 주 스템 구축 등 1년여의 준비 끝에 주민들 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됐다.

부끄머니는 광주 자치구 중 최대 규모 인 100억원 규모로 발행되며, 10월말 기 준 1만9200여곳의 가맹점을 확보했다. 북 2일 북구에 따르면 '부끄머니'는 만 14 구 대부분의 상점과 식당, 전통시장 등에 서 사용 가능해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유도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끄머니는 금액별(3·5·10·20·50만 특히 50만원권을 41만원에 구입할 수 원)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되며, 가맹점 현

양충호 광주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이번 지역화폐 발행은 경기침체와 여름 연합회장은 "상인들은 이번 부끄머니 발 행이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회복의 기폭 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민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라다" 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어린이 교통·생활안전 O·X 퀴즈대회 1일 광주 북구 오룡동 어린이교통공원 깅당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생활안전 O·X 퀴즈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정답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퀴즈대회는 (사) 광주어린이안전학교가 마련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남구 봉선동 먹자골목 간판 '새단장'

행안부 '개선사업 공모' 선정

품격 있는 거리로 단장된다.

2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주 지역에서는 봉선동 먹자골목 일대가 유일 을 도입할 방침이다. 하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간판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간판을 정 비하고, 지역적 특성과 업소의 개성을 반 영한 간판으로 교체해 거리 환경을 개선 역 디자인단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하는 사업이다.

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매년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 며,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 및 광주 남구 봉선동 먹자골목이 쾌적하고 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선 정하고 있다.

특히 남구는 봉선동 먹자골목 일대에 관 '2026년 간판 개선 사업 공모'에 광주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간판

특히 상권 주변에 간판이 난립하는 것 이에 남구는 2026년부터 정일품 사거리 을 차단하고, 깔끔하면서도 단아한 거리 를 중심으로 약 310m 구간에 사업비 2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포당 벽면 이용 간 한 감지 건수가 8% 수준에 그쳐 해당 시 판을 1개씩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간판 디자인은 주민협의회 대표단과 옥외광고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 이는 오는 11~12월 구성될 것으로 전망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주 된다. 운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5·18 혐오 일상화…온라인 왜곡·폄훼 댓글 봇물

지역 비하·유공자 공격 77% 외부신고・작성자 삭제 의존 재단 "플랫폼, 민주주의 방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 등 이 담긴 온라인 댓글의 대부분이 '지역 혐 오'를 드러내는 표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털 플랫폼 자율규제 시스템'을 통 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은 2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네이버를 중심으로 주요 언 론사의 뉴스 등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5·18 왜곡·폄훼로 신고된 대 상은 총 7934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 혐오 2967건

(37.40%), 가짜 유공자 관련 1640건 (20.67%) 등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좌파(이념) 비난 860건 (10.84%), 무 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 장 폭동 804건(10.13%), 오월정신 폄훼 640건(8.07%), 북한군 개입 349건 (4.40%)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 을 왜곡·폄훼하는 댓글을 자동으로 필터 링하는 시스템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주정비 및 플랫폼의 책임성 투명성 의무

실제 신고대상 중 클린봇(AI로 부적절 한 혐오 표현을 자동 감지해 걸러내는 기 능) 감지는 673건 (8.48%) 에 불과했다. 성자 삭제 669건 (8.43%) 등으로 사람이

개입해 이뤄진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재단 등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일 국회에서 5.18 왜곡 · 폄훼 표현 의 실태를 공론화하고, 플랫폼의 책임성 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단 등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 자율규 제의 한계, 방심위 제재의 실효성 문제, 혐오 표현의 반복적 재생산 구조를 지적 한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범 부과 △유튜브 등 신유형 미디어의 조정・ 중재 체계 포섭 △해외 플랫폼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 및 신고・삭제 절차 개선 △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미디어리터러 신고를 통한 삭제 6536건 (82.38%), 작 시·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다. 윤용성 기자 vo1404@

광주학생독립운동, 유네스코 등재 추진 잰걸음

김재기 전남대 교수, 100주년 되는 2029년 목표 "5·18과 함께 광주정신…세계적 가치 인정 기대"

일제 치하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있다. 전국 항일운동인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올 해로 96주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에서 유 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립운동 유네스코 등재 기반 조성사업'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기 정치외 교학과 교수는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 께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년이 되는 2029년 등재를 목표로 삼고

이 사업은 올해 교육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교육부와 광주시가 지역 대학과 협력하는 RISE 사업의 하나로 향후 5년간 추진된다. 김 교수는 2009년 2일 전남대 등에 따르면 '광주학생독 광주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 기획학 술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등재의 필요 성을 절감했고, 이후 관련 교수진과 함

그가 유네스코 등재에 나선 이유는 광

주가 5·18민중항쟁과 더불어 학생독립 운동의 발상지로, 두 정신이 맞닿아 있 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5·18 민중항쟁과 광주학생독립 운동이 '광주정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 는 민주화운동인 '5·18 민중항쟁'은 광 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에서 이어진 것" 이라며 "당시 5개월 동안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전개됐던 운동인 만큼, 광주 시민들이 홍보대사가 돼 유네스코 등재 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학술 연구원 5명 등과 함께 해외 언론의 보도



김재기 전남대 교수는 1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5재외동포청·재외한인학회 추계 국제학 술회의'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유네스코 등재 추진 위원을 위촉했다.

해외에서도 등재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등재 작업의 기초 자료 확 보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학생

대회 개최 등 국내 활동뿐 아니라 최근 자료, 재판자료,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후원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있 다. 이와 함께 학술회의를 통해 등재의 당위성을 국민과 광주시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금타 근로자들 불법파견 아냐"

대법원, 광주고법 파기환송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 리·배식 업무를 했던 협력업체 근로자 5 명에 대해 '불법 파견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마용 주 대법관은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 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 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2심 판결 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

이들은 지난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 서 조리・배식업무를 하던 근로자들로,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 용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제공 했으나, 작업지시서의 주된 내용은 간단 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 작 업 방식 등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 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